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1월 12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남원농협-서귀포농기센터, 협약-12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남원농협-서귀포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14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기고]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하세요-15면(한경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 신청-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농민수당 지급 대상 자격요건 완화...수령자 확대된다-6면	-	제주매일
○	당근은 급증... 양배추도 늘어-3면	-	제주일보
○	브로콜리 수확하는 농촌-6면	-	한라일보

(제주매일: 2024년 1월 12일)

○ 남원농협-서귀포농기센터, 협약-12면



남원농협-서귀포농기센터, 협약

남원농협(조합장 고일학)은 지난 10일 중회의실에서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윤)와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1.12.
제주매일 12

(한라일보: 2024년 1월 12일)

○ 남원농협-서귀포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14면



남원농협-서귀포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남원농협(조합장 고일학)은 지난 10일 본점 중회의실에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윤)와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1.12.
한라일보 14

(제주일보: 2024년 1월 12일)

○ [기고]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하세요-15면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하세요



나의 의견

한 경 수

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최근 탄소 중립과 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요구가 점점 커지며 우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 미생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생물 배양시설이 없었던 2022년까지는 제주와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농업미생물을 매년 50t 내외 수령해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했지만 수요 대비 공급량이 항상 부족했다. 이에 2022년 12월 농업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미생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651 농가

에 미생물 73.9t을 공급했다. 농가에 보급된 미생물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4종이며 항상 품질 관리에 노력해 연중 미생물 비료 공정규격 이상의 균 밀도를 유지하고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없는 안전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미생물 활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 이상이 미생물 공급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호응과 호평에 힘입어, 올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공급량을 100t으로 늘릴 예정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농업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해야 공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오는 2월에 진행 예정인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하길 당부한다. **1.12. 제주일보 15**

(제주매일: 2024년 1월 12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9면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간: 2024. 1. 2. ~ 1. 31.(30일간)
- 신청방법
 - 방 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 편: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이메일: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참고

[문의]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1.12.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제주매일 9

(제주일보: 2024년 1월 12일)

○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 신청-11면

Jeju ■ 도정 소식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 신청

▲내용=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함.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람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신청 기간=1월 31일(수)까지

▲신청 방법

△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우편=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이메일=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 참고

▲문의

△제주농업기술센터(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760-7911~3).

1.12.
제주일보 11

(제주매일: 2024년 1월 12일)

○ 농민수당 지급 대상 자격요건 완화... 수령자 확대된다-6

농민수당 지급 대상 자격요건 완화...수령자 확대된다

도 농민수당심의위, 지침 개선안 심의 의결...대상자 11% ↑
예외사항 인정 및 농약 및 비료 적정사용 준수 조항도 추가

제주 농민수당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령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농민수당 지원사
업 계획 확정을 위한 지침 개선안(안)을 10
일 심의 의결했다.

올해로 3년 차인 농민수당 지원사업
은 2022년도 첫째 3만7683명에게 150
억7301만2천이 지급된 데 이어 2023년
도 제주매일 6명에게 167억4200만

원이 지급돼 첫째보다 지급 대상자가
11% 증가했다. 도는 올해 농민수당 수
령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을 170억원 확보한 상태다.

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농업경영체
에 등록된 경영주, 배우자, 농사를 짓는
자녀까지 지급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경영체단위로 지원하고 있어, 도의 지원
폭이 상대적으로 넓고 두렵다는 차이가
있다.

도 관계자는 "농민수당 지급 금액 상
향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보건복지
부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늘리기는
쉽지 않고, 도 예산에도 한계가 있어 증
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농민수
당 지급대상의 자격요건 부분에 예외사
항을 뒤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서약서
조항을 추가 신설했다.

농민수당 지원 자격요건 중 '2년 이상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 부분은 농업경영
체 중간 말소(등록, 갱신기간 일시 등의
사유)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
리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농업경영정

보 재등록자료 등 전업농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
로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3년 이상 도내 주소 계속 유지'
부분은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병원
입원, 질병치료 등)로 단기간 전출 시 행
정시(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
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에 '농약 및 비료 적정 사용 준수' 조항을
추가하고,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
서를 받도록 해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4
조 농민의 책무에 따른 의무조항을 추가
도록 개정했다.

최병근 기자

(제주일보: 2024년 1월 12일)

○ 당근은 급증... 양배추도 늘어-3면

월동 재배 무·구마늘·양파·쪽파·콜라비 등 면적 감소

당근은 급증...양배추도 늘어

(46.8%)

(4.8%)

2023년산 제주지역 월동채소 재배
면적이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근 재배면적은 크게 늘었
고, 양배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산 월동
채소 13개 품목의 재배면적을 드론
으로 관측 조사한 결과 전체 재배면
적은 1만2099ha로, 전년도 1만2602
ha보다 4%(503ha)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기준 재배의향 조사 면
적(1만2953ha)보다도 6.6%(854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
제주일보 3
월동 무 재배면적
은 5091ha로, 전년(5464ha)보다
6.8%(373ha) 감소했고, 구마늘

은 1088ha로 전년(1242ha)보다
12.4%(154ha) 줄었다.

또한 양파는 750ha로 전년(801ha)
보다 6.4%(51ha), 브로콜리는 1262
ha로 전년(1257ha)보다 1%(13ha) 줄
었고, 쪽파·콜라비 등 기타 7개 품
목도 1041ha로 전년(1424ha)보다
26.9%(383ha)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전년도에 재배면적이 크게
줄었던 당근은 1245ha, 전년(848ha)
보다 397ha(46.8%)가 늘었다. 하지
만 재배의향 조사(1320ha)보다는 재
배면적이 적었다.

양배추 재배면적도 1622ha로, 전
년(1548ha)보다 74ha(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자연재해 피해가

적고,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 증가
로 인한 과잉 생산이 우려됐지만 실
제 재배면적은 전년도와 재배의향
조사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
월 8일까지 농경지 5만5000ha를 대
상으로 드론 관측조사를 진행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드론을 활용한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사 결과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도
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
난해 기상 여건이 양호해 단위면적
당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과
잉 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은 자율감
축, 분산출하, 소비촉진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재병 기자

(한라일보: 2024년 1월 12일)

○ 브로콜리 수확하는 농촌-6면



브로콜리 수확하는 농촌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브로콜리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